



오창국 목사
박종교회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상하지는 않을지, 마을 어귀의 축대가 무너지지는 않을지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지는 농촌의 일상이 애뜻하게 다가옵니다. 신영복 선생은 “농촌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 했습니다. 재해와 소멸이라는 거대한 폭우 앞에 선 우리 농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잠시 내맡겨주는 우산 조각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묵직한 연대의 결집일 것입니다. 자연의 비바람만큼이나 차디찬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폭우 속에서, 농촌 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제도적 울타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여기에 처한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 15만 원의 소액의 재원은, 당장의 폭우를 막아줄 든든한 독이자 공동체의 체질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정교한 마중물 역할을 복복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돋보이는 설계는

하는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본래대로 오르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만 내는 제한 규정은 오히려 또 다른 고립을 낳기도 하며, 스마트폰 진액 확인의 장벽이나 직거래 카드 단말기 미비 같은 행정적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기존 농업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농촌의 가장 오

녀을 수 있도록 ‘행복 서클’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훌륭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농촌교회는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지역 순환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마당이나 여유 공간을 제공해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기본소득 카드로 당당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동체 장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 축소 우려로 위축되기 쉬운 농촌 돌봄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마을 협동조합’이나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촌교회

다원 거점이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인 ‘농촌교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농촌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 머무는 복음 전파자를 넘어, 기본소득이 가져온 변화를 주민들의 삶 속에 안착시키는 ‘생활 밀착형 선교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상벽인 ‘디지털 소외’와 ‘이동의 한계’를 채워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 비어있기 쉬운 교회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만대 상점이나 로컬푸드 매장을 편리하게 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얻은 삶의 여유를 교당이 아닌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로 승화시키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교한 제도적 보완 외에, 비바람 치는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시린 발을 씻겨주고 든든한 비침묵이 되어줄 농촌교회의 신앙적 연대가 맞물릴 때,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고 지속 가능한 핵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외부물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학회 총무
· 해남교회 담임목사
· 주경기장목회 공동대표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가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사고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가류민이며 동거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지를 영구히 사고팔지 말아야 하는 법을 주신 주요한 목적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가류민이며 동거자일 뿐임을 명백히 하고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23절의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말씀과 2절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바로 토지소유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고, 단지 토지사용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인데 그 의미가 바로 ‘기업’(基業: 유업, 유산, Inheritance)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

구약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가리키는 ‘기업’의 히브리어인 ‘나할라’는, 중세 유럽의 ‘영주-봉신 계약’에 담긴 언어로 표현할 경우, 영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쳐야 할 십일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차자인(僱人) 곧 소작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地代,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사용료, 소작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와 각종 헌물 곧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公有)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약속의 땅에서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대를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십일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의 근본 정신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십일조가 나온다. 그 가운데 제1의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준 것이고(민 18:21), 제2의 십일

지대(地代) 공유

주이신 하나님이 봉신(封臣)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주시는 봉토(封土)와 같다. 또한 이것은 ‘영주-봉신 계약’과 그 의미에서 비슷한 고대 근동의 ‘종주-속주 계약’(Suzerain and Vassal Treaty)에 담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기업 곧 ‘나할라’를 ‘종주-속주 계약’으로 표현할 경우,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종주(宗主)이신 하나님이 그 분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주시는 땅과 같다. 원래 ‘종주-속주 계약’은 국제 정치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강대국의 왕인 종주(宗主)와 그가 지배하는 약소국의 왕인 속주(屬主) 및 그 신민(臣民) 사이에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에 왕정(王政)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모세는 왕인 속주(屬主)는 아니지만 속주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영주-봉신 계약’의 언어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종주-속주 계약’의 언어로 표현하든지 관계없이, ‘기업’으로 번역된 ‘나할라’의 본질은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토지의 유일한

주는 생인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자기 성읍의 레위인을 지배하던 것(신 14:23-27), 제3의 십일조는 매 삼년 끝에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준 것이다(신 14:28-29, 신 26:12). 이 세 가지 십일조는 모두 공유(公有)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가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하다. 가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와 각종 헌물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받은 토지 사용자들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바친 지대이다. 그리고 이 지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여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지대공유제 사회였던 것이다.

외부물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2026 북동미월드컵’ 준결승전을 보겠다는 조6 막내와의 약속 때문이다. 준결승전 골이 열 골이 터졌다. 보기를 잘했다. 다음 날 더 일찍 일어났다.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한 골이 안 터진다. 대단한 결승전이다. 결국 연장전 마무리 몇 분을 남기고 스페인의 한 골이 결승골이 되었다.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재미있었고, 골이 없는 것도 재미있었다. 막내와 함께 응원하는 시간 자체가 좋다. 월드컵을 마치고 두 가지의 사건이 특별히 기억이 남는다. 개막식과 결승전에 우리나라 K-POP 가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을 부른 이재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과 ‘BTS’의 출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32강 좌절의 속제와 팬들의 분노다.

2026 북동미월드컵 개막식에 80억의 시청자 앞에 두 가수가 등장했다. 갑자기 영어 가사에 한국말이 붙는다. “야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 ‘DNA’ 제목의 노래인데 중간에 갑자기 한국어가 나와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가 했다. ‘게데헌’의 ‘골든’을 부른 이재가 가사를 함께 쓰고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했다. 결승전 중간 하프타임 시간에 여러 팀의 가

수들이 출연하였는데 ‘BTS’가 출연하여 ‘다이너마이트’를 개사해서 불렀다. 우리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5분의 1 정도의 땅이지만 문화 영토는 이미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생겼다. 스포츠와 함께 문화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32강 앞에 여러 확률을 기다리다가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 축구는 상대의 골대에 골을 넣어 이기는 경기다. 여러 가능한 확률로 이기는 경기다 아니다. 황금세대를 불리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와 이재성 등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비전투가들도 어리둥절한 전술로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대한축구협회는 개인의 욕망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가한 경기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도 패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전술과 졸전으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도무지 이기려고 하는 경

“월드컵과 대한축구협회?”

기처럼 보이지 않아 많이 실망했다. 경기에 져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한 축구협회의 많은 변화를 촉구한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축구협회와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직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모를 줄 알고 말로 속여도 안 된

다. 선수가 아니어도 다 보인다. 우리 국민 1억 개의 눈과 전 세계의 100억 개의 눈이 보고 있다. 말에 속는 시대가 아니다. 어부지름을 빚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인은 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으로 대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도자가 되려거든 실력을 기르라는 것이다. 실력은 없는데 자리를 탐하게 되면 전체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번 더 기대해 보려고 한다. 당연히 지켜본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지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행한 마태, 2 지자

외부물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ms TV (ims 21.tv)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송안의 신문'

1.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2.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3. 지난 기사 · 일반 정보 · 성명검색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명검색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